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1억 원

-모투자신탁 218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2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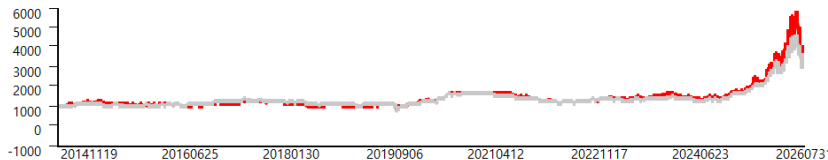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33.13%	-12.34%	17.22%	105.04%	127.68%	147.71%	118.53%	256.21%
클래스 C	-33.28%	-12.74%	16.31%	102.07%	121.07%	136.84%	102.68%	198.21%
클래스 C-E	-33.23%	-12.61%	16.59%	102.98%	123.10%	140.17%	107.49%	177.10%
클래스 S-P2	-33.22%	-12.58%	16.67%	103.25%	123.73%	141.21%	109.16%	237.55%
벤치마크	-22.19%	-0.05%	26.24%	103.22%	138.04%	150.53%	105.96%	235.3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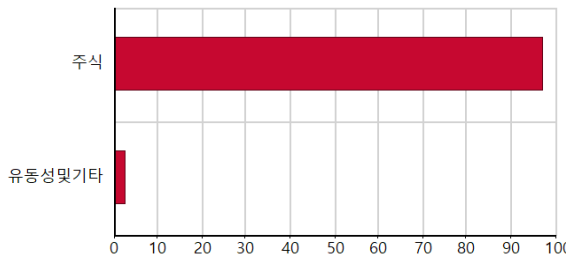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7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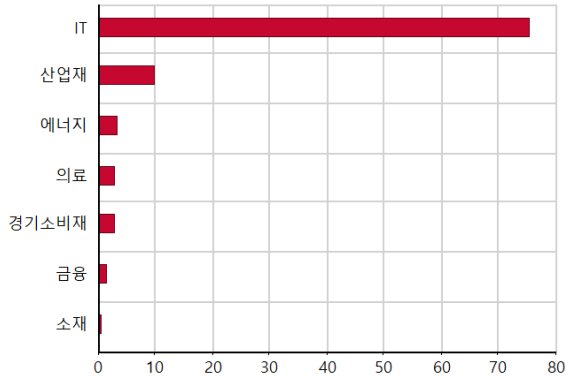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4
2	유동성및기타	2.6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75.7
2	산업재	10.0
3	에너지	3.3
4	의료	3.0
5	경기소비재	3.0
6	금융	1.7
7	소재	0.8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7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33.6	HD현대	금융	2.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5.0	삼성물산	유통	2.0
삼성전기	전기.전자	5.7	삼성생명	보험	1.7
SK스퀘어	금융	3.9	가온칩스	전기.전자	1.5
셀트리온	제약	3.0	SK이터닉스	건설	1.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2 : 총 연 0.93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KOSPI는 전월 대비 22.19% 하락한 6,595.45, KOSDAQ은 21.11% 하락한 719.76pt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초부터 AI 투자 사이클 둔화우려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락 출발한 지수는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및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되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Capex 계획 발표에도 투자 확대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 부담으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 후반에는 중국 CXMT의 상장, SK하이닉스 실적 기대치 하회 및 주주환원 기대감 소멸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과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대되었고, 미 연준의 매파적 신호와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다시 더해지며 KOSPI는 5,500pt대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마지막 거래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은 예상치를 통해 AI투자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형 헤지펀드 청산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와 최대원 SK 회장의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며 KOSPI는 하루만에 17.91% 폭등,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7월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섬유·의복, 은행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자부품, 반도체, 인터넷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달러 환율은 1,441.10원으로 전월 대비 6.51% 하락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21.83% 상승한 84.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3.6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6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반도체 이익 모멘텀의 낙수효과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비중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중 시장이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여기에 고점 부근에서 과도하게 쌓여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및 손실이 확대된 반도체 관련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 급락과정에서 추가로 출회되면서 반대매매 및 하방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수급 왜곡 현상이 하락시 낙폭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기존에도 7월 말까지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발표를 통해 점진적인 우려 해소의 과정을 예상해왔으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과 수급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강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이 수익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 이와 관련된 비중을 크게 조정하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펀더멘탈이나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부를 비중 축소는 반등시의 기회손실 우려로 펀드 수익률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종과 증권, 철강 업종의 미보유 효과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전자부품, 화학, 유통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모리 대형주 외에 AI와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로 선별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기, SK스퀘어, 삼화코덴서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31일 대폭등에도 불구하고 7월 월간 KOSPI 수익률이 -22.1%로 1990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KOSPI 지수는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대형 악재였던 90년 3저 호황 버블 붕괴, 97~98년 외환위기, 00년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사례들과는 달리,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8월 KOSPI는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한 빅테크들의 Capex 확대 기조 및 AI 비즈니스 성과 재확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3~4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가시성, 글로벌 레버리지 펀드들의 강제 매도세 진정 등이 저점 확인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주가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빅테크들의 Capex 집행 기조가 2027년까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예상치를 뛰어넘는 AI 비즈니스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FOMC 이후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금리 예상 경로가 덜 매파적으로 수정되었고,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10년물 금리 급등에 따른 긴축 발작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노이즈는 지속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월 중시는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펀더멘탈 훼손 없이 이익 증가세가 유효한 핵심 주도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의 조정폭이 너무나 가팔랐던 상황에서 부정적 심리가 너무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 이익 성장성, 밸류에이션 매력도 외의 반등의 트리거를 잡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는 AI 투자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오라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실적발표까지 확인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시간 기준 7월 31일에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이 인공지능 전문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상장주식 포트폴리오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으나, 시장의 급락과정에서 고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AI 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고, 레버리지로 인한 매물 폭탄이 시장에서 소화됨으로써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저점을 확인했다 생각합니다. 시장의 조정이 모두의 예상치를 벗어날 만큼의 단기간에 큰 낙폭을 기록한 만큼,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은 위험하다 판단합니다.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고, 이익 추정치도 재차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메모리와 IT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만한 안정적인 주식의 비중을 일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 중목군 중에서는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는 수요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중에 한국의 입지가 선호되고 있는 변화가 감지가 되어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업체들을 선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업종은 정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정에서 생산시설이 파괴되면서 정제마진 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AI 모멘텀과는 별개의 투자포인트를 가진 정유주의 비중을 확보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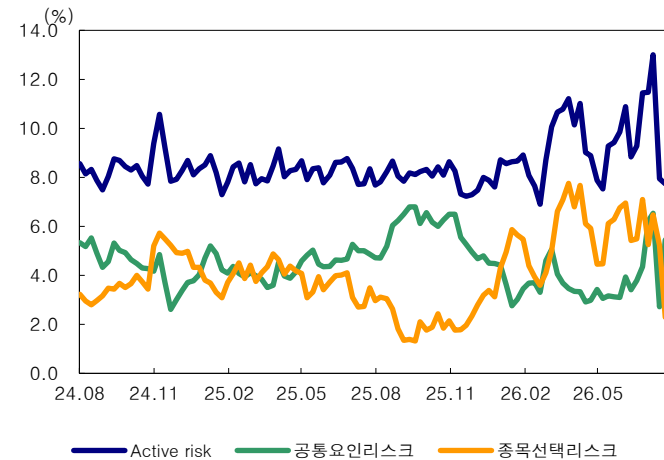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편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수익금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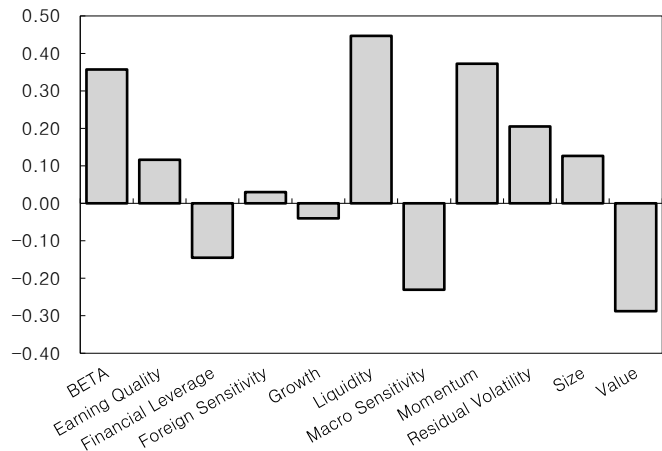
	2026-07-31	2026-06-30
Active Risk ¹	7.74%	10.12%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5.45%	3.5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8.15%	5.18%
- 섹터 리스크 기여도	-2.70%	-1.68%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2.29%	6.62%
베타	1.19	1.27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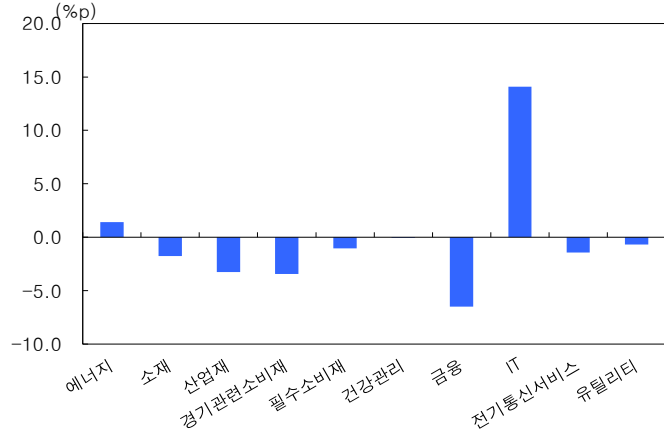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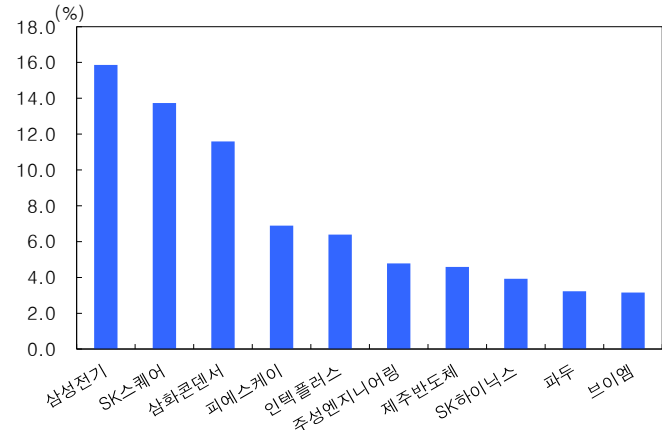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7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7.74%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개 종목 증가하여, 38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경기관련소비재',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IT'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6월말 기준으로는 'SK스퀘어'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주성엔지니어링'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